



노원문화예술회관 Nowon Culture & Arts Center

국제사동청소년연극제 서울아시태시 겨울 축제

그건 도깨비 마음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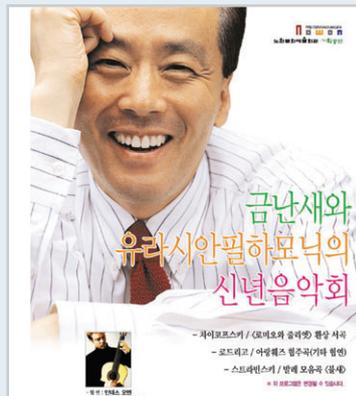
▷일시 : 2008. 1.12(토)~13(일)
11:00, 14:0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료 : 12,000원(유료회원-30%, 단체-20%할인, 36개월 이상 관람가)

꼬마여왕님의 색깔탐험

▷일시 : 2008. 1.15(화)
11:00, 14:0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료 : 12,000원(유료회원-30%, 단체-20%할인, 36개월 이상 관람가)

금난새와 유라시안필하모닉 신년음악회

▷일시 : 2008. 1.25(금) 19:3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협연 : 안데스 오엔 (스페인 세르비아 기타콩쿨 우승)
▷관람료 : R석 35,000원
A석 30,000원
(유료회원-30%, 학생 및 단체-20%할인, 7세 이상 관람가)



'책 읽는 사람 그 행복한 얼굴' 사진전

▷전시기간 : 12.12(수) ~ 2008.1. 29 (화)
▷전시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4층 전시실 등 3개소
▷순회전시
• 노원평생학습관 : 12.12~12.21
• 월계문화정보도서관 : 12.24~2008.1.7
• 노원문화예술회관 : 2008.1.17~1.29

박동인 초대전

▷전시기간 : 2008. 1. 3(목) ~ 1. 15(화)
▷전시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4층 전시실

전통자수의 '계·맥 & 선의조형' 전

▷전시기간 : 12. 26(수) ~ 2008. 1. 1(화)
▷전시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4층전시실



공연예매 및 문의 :
☎ 3392-5721~5
<http://art.nowon.seoul.kr>



지역의 이모 저모

노원구 자원봉사단체인 은하수봉사단 (회장 최옥점)은 독감 예방접종 기간 동안 안내봉사를 하고 '희망 2008 따뜻한 겨울보내기캠페인'에 성금 30만원을 기탁하는 등 선행을 베풀고 있다.

노원로타리 클럽(회장 문세영)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중계3동 독거노인 및 장애인 500가구에 김장김치 500박스(3,500만원 상당)를 전달하였다.

새마을운동노원구지회와 빛사랑안과 (원장 이동호)는 협력하여 무료 안구검진 및 백내장 수술 등 의료봉사를 하고 있어 '함께 행복한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중계동 소재 청암중고등학교(이사장 추상욱)에서는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 백미50포와 김장김치 50박스를 구매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전달하였다.



월계1동 성서 성결교회(목사 김낙중)에서는 추수감사일에 모은 '사랑의 쌀'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20가구에 배부했다.

월계2동 월계동장애인협회(회장 박기철)에서는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공릉3동 삼성중공업과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600만원을 모아 김장을 담아 독거노인 60가구에 전달하고 나머지 양은 경로식당과 도시락 배달에 이용하였다.

하계1동 늘푸른 봉사회(회장 심윤보)에서는 아미(아주 친한 친구의 순우리말) 수혜대상자 세대를 방문하여 묵은 먼지를 제거하는 등 청소봉사를 실시하였다.



하계2동 2006년부터 연말 불우이웃 돕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현민, 김동규, 이명호, 김재현(중평초6) 어린이가 불우이웃돕기로 라면 10박스를 기증하였다.

중계본동 일신건영(봉사단체 참사랑)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가족 5세대에 세대별 100만원씩 성금을 기부하였다.

중계2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노래교실' 수강생 (강사 유수남)은 시립중계노인복지관을 찾아 거동불편 노인들과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중계3동 대진여고(교장 윤대웅)학생들은 관내 어르신 150명을 대강당에 모시고 연극공연 및 중식을 대접하였다.

상계1동 (주)하나원마켓의 부우회 회원은 성금을 모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 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20세대를 선발하여 김치와 성금 10만원을 전달하였다.

상계4동 동부순복음 교회(담임목사 이장균)에서는 상계3,4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 200여명을 모시고 점심식사 대접 및 겨울내복 전달 등의 내용으로 경로잔치를 열었다.

상계5동 I(아이)어린이집(원장 김현주)에서는 10여년 동안 포천군 신북면 소재의 자가 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김장을 하여 관내 저소득층을 위하여 기증해 오고 있다.

상계8동 『자원봉사 캠프』(캠프장 김준심)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피부관리 교실』(강사 강희경) 봉사 동아리 『사랑의 약손』회원들과 합동으로 16단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피부 경락 마사지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상계9동 주공12단지 부녀회(회장 이순금)에서는 통장들과 함께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였다. 정동순씨 부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저금통의 성금을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사용해달라고 기탁하였다. 이들 부부는 익명 기부를 하였으나 공동모금회에 실명입금을 위해 당사자를 찾았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호(11.25자 6면)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기사내용중 새마을부녀회장 김용수회장은 **김영수회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주민이 뽑은 2007년 '노원구 10대 뉴스!!'

1위 →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4호선 연장 정부 사업 확정」

2007년 한 해 동안 노원구 주민들은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구정업무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구는 지난 5일부터 3일간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한 주민 1천 8백여 명을 대상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추진한 주요 역점사업 19개 중 10개를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누계가 많은 사업 순으로 주민이 뽑은 '2007년 구정 10대뉴스'를 발표했다.

주민이 선정한 10대 뉴스 1위는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4호선 연장 정부사업 추진', 2위 '교육특구 지정', 3위 '경전철 유치'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동부 간선도로 확장 공사', '당현천 복원공사 시작', '공동재산세 도입에 따른 구의 노력', '부동산 가격 상승', '상계 뉴-타운 계획 발표', '중계동 104번지 일대 개발', '노원역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 순으로 집계되었다.

#주민 숙원사업 청신호- 창동차량기지이전

1위로 선정된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연장 사업의 정부사업 확정은 그간 구에서 지난해 12월 남양주시와 양해각서 체결 및 실무협의회 구성을 시발점으로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 이전 및 연장 건의 등 11회 △경기도 및 남양주시 방문 협조요청(실무협의 등 포함) 4회 △이전 및 연장 타당성 연구용역보고회 개최 3회 외부기관 자문 3회 등 총 20여 차례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정부 관계부처에 꾸준히 건의한 데 따른 결실이다.

#교육특구 지정- 주민 자긍심 고취

이어 2위인 교육특구지정은 노원구의 강점인 교육 분야를 중앙정부에서 인정한 것으로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는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교육환경 조성 집중키로 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 교육 지원 강화', '교육환경 개선', '평생교육 지원', '교육산업지원 육성', '교육 불균형 해소' 등 5개 분야 54개 사업 추진에 5년간 1,006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경전철시대 개막- 교통취약지역 교통난 해소



또 3위인 경전철 유치는 이 지역 주민들이 교통 불편이 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사업은 왕십리역~중계동을 연결하는 경전철 동북선 노선으로 구는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 지난 5월 주민대표, 관련 기술 전문가, 시·구의원 등 63명으로 구성된 '경전철 사업 추진 지원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뉴스를 분야별로 보면 창동차량기지 이전, 경전철 유치,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교통 분야에서 3개 사업이 모두 상위권에 올라 교통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또 상계 뉴-타운 개발, 중계동 104번지 일대 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이 3개로 60~70년대 상계동, 중계동 일부에



형성된 '달동네'의 재개발을 통해 지역 이미지 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 위한 역량 강화

이밖에 10대 뉴스에는 들지 못했으나 마들 근린공원의 노원마들스타디움 건립, 구청사 1.2층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 문화 공간 조성, 공공 전시회 등이 뒤를 이어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의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주민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표출된 것으로 이들 사업을 향후 구정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미경, 김혜수 취재기자

교육특구 지정, 경전철유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등 지역발전 분야에 관심 집중

노원구 10대 뉴스



※각 분야별 수는 19개 사업중 10개를 선정한 응답자 수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노선 연장, 정부사업 확정

- 건설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당고개~진접노선 포함 -

63만 노원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연장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월 21일 이용섭 장관 주재로 대도시 광역교통 위원회를 열어 지하철 4호선을 당고개에서 경기도 남양주 진접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 확정 발표하였다.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란 국가차원의 균형발전 및 대도시권의 효율적 광역 교통관리를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창동 차량기지전경

이번 정부 발표는 그동안 노원구에서 차량기지 이전 및 수도권 동북부지역 교통개선을 위한 연장 당위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데 따른 가시적 성과로 구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활발히 추진해왔다.

특히, 구는 지난 10월과 11월,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에 노원구와 남양주가 공동으로 추진한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수행결과를 전달하고 정부의 광역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구는 지난해 철도관련 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정책사업기획단을 발족, 지난해 12월 남양주시와 공동협약을 체결해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 추진하였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용역보고회 개최 등 차량기지 이전 및 연장 사업이 정부의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노근 구청장은 "구가 실시한 타당성 용역결과 4호선 연장 사업은 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추진시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소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해 본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사업기획단 ☎ 950-4373)

월계동에 첨단 문화정보도서관 개관

월계동 598번지(옛 월계2동사무소)에 지상4층 지하 1층(연면적 1,962㎡) 규모의 첨단 디지털『월계 문화 정보 도서관』이 27일 개관 한다.

지난해 5월 착공, 1년 7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문을 여는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은 총 공사비 36억 1천2백만 원을 들여 327석의 열람석과 5만여 권의 장서를 갖췄다.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전경

도서관은 △1층에 미취학아동과 임가를 위한 모자 열람실(60석) △2층에 초등학교생 등을 위한 어린이 열람실(41석), 정기간행물을 열람할 수 있는 연속간행물실(12석), 컴퓨터강좌를 위한 문화강의실(15석)을

배치했다.

또 △3층에 각종 정보 검색과 DVD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실(23석), 각종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종합 자료실(28석) △4층에 개인 공부를 위한 일반열람실(124석)과 문화교실(24석)이 들어서고 옥상에는 야외 휴게실이 설치된다.

전산 서버와 도서관리용 프로그램은 지난해 개관한 노원정보도서관과 공동 이용하게 하여 연간 약 4억여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약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노원 정보 도서관과 노원 어린이 도서관의 도서를 통합, 검색할 수 있고 회원증 하나로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일반열람실 이용은 하절기엔 오전 7시, 동절기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다. 기타 열람실은 아침 9시부터이고 매일 둘째 넷째 월요일 휴관한다.

이용시간 및 안내 www.wolgyelib.kr(문의 ☎ 991-0871~4)

(문화과 ☎ 950-3080)

2008.1.1부터 동(洞) 운영 변경 안내

통합 대상동	통합동 명칭	통합동 소재지	비고
공릉1동+공릉3동	공릉1·3동주민센터	현 공릉1동 주민센터	
상계3동+상계4동	상계3·4동주민센터	신축중인 상계4동 주민센터	상계4동 신청사 개청전까지 상계3동청사 이용
상계6동+상계7동	상계6·7동주민센터	현 상계7동 주민센터	

※유휴 청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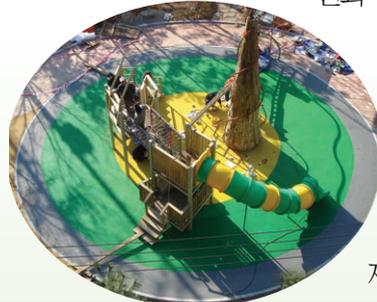
- 공릉3동 → 노원문화센터
- 상계3동 →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
- 상계6동 → 노원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과 ☎ 950-3026)

주민참여형 놀이터 '씨알공원' 개장

- 공릉동 '씨알공원' 주민참여로 설계·디자인,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로 새 단장

공릉동 371-1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 '씨알공원'이 리모델링사업을 마치고 주민과 어린이에게 개방되었다.



구는 친환경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 사단법인 견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약칭 도시연대)와 손을 잡고 6개월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당초 어린이 놀이터로 계획되었으나 제 구실을 못하고 소외되었던 '씨알공원'을 주민참여형 공원으로 재탄생시켰다.

동화 속 '잭과 콩나무'를 모티브로 한 씨알공원은 '씨알'이라는 이름에 맞게 콩알을 주제로 하여 디자인 워크숍을 열고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반영한 예술조형물로서의 놀이공간을 만들었으며, 두 차례의 주민회의를 거쳐 수립된 의견에 따라 운동기구를 갖춘 주민쉼터로서의 기능도 보강하였다.

구는 앞으로도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관내 모든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원녹지과 ☎ 950-3898)



의회소식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개최

제161회 노원구의회(의장 이광열) 정례회가 11월 26일 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 활동을 펼쳤다.

12월 5일에는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이영섭 의원, 이훈 의원이 구정 전반에 대한 열띤 질문



을 하고 구청장 답변을 들었으며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태)를 구성하였다.

2008년도 집행부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과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주민복지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노원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의원으로서 청렴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직무전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지방의원의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직무와 관련된 행위 개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의원의 직무전념을 위하여 겸직 금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 정신을 생업에 확대 적용,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또는 위탁 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3개항으로 돼 있다.

(노원구의회 ☎ 950-3447)

노원구·구의회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노원구(구청장 이노근)와 노원구의회(의장 이광열)는 완전 개통예정인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를 인하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구청과 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이번에 개통되는 북부구간을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존에 건설된 남부구간에 비해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는 것은 전액 정부예산이 투입된 다른 구간과의 형평에 어긋나 뿐더러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며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로 건설이 늦어져도 불이익을 감수했던 북부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인 만큼 합리적인 요금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건설비용을 비롯하여 원가 산출 근거 등을 공개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사패산 터널이 개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 ~ 퇴계원 구간 이용자들은 양주 요금소까지 1,900원, 불암산 요금소에서 1,100원을 내야했다. 하지만 터널이 개통되면 두 요금소의 통행료를 각각 3,300원과 1,900원으로 올려 총 52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km당 104원(총길이 36.3km)으로 km당 47원(총길이 91.3km)인 다른 구간의 두배가 넘는 금액이다.

구의회 이광열 의장은 “서울 경기 북부 주민들은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인천공항 등 서북도로를 이용할 때 이 구간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곳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정책과도 배치된다.”며 주민들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이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행정과 ☎ 950-3481)

고사리손 1년간 모은 성금 기탁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성금을 전달받고 있는 이노근 구청장

지난 20일 관내 62개 사립유치원생 7,224명이 1년간 고사리 손으로 모은 성금 10,631,440원을 구청을 찾아 전달했다.

구는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도움이 필요한 불우 이웃에게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진흥과 ☎ 950-4365)

언론에서 본

노원

NOWON

당현천 생태하천화 28일 착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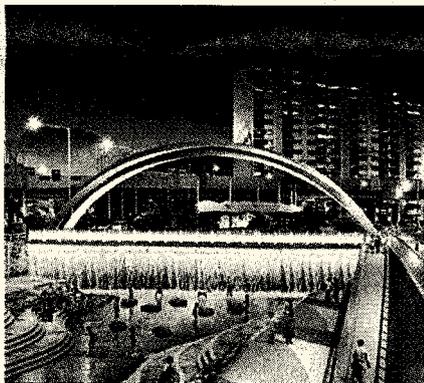
3.15km에 232억 투입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乾川)인 노원구 '당현천'이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한다.

노원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상계역 환승 주차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당현천(조감도)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공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상계역 남측 불암교에서 중랑천 합류지점까지 3.15km 구간을 생태·문화·체육시설을 갖춘 친환경 테마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2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류 구간인 당현4교~당현3교 사이 0.8km는 조류, 물고기 등이 서식하는 '하중도'



등을 조성하는 등 자연생태구간으로 복원한다.

중류인 당현3교~당현2교간 0.9km는 친수 이용구간으로 수변무대 및 분수, 벽천(壁泉),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 2곳 등을 설치한

다. 상류인 당현2교~불암교간 1km는 문화의 벽, 참여의 벽 등 5개 테마의 벽면갤러리(길이 50m, 높이 2.5m)와 워터스크린(길이 30m, 높이 3m), 수변무대, 2400㎡ 규모의 불암광장 등 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당현천에는 하루 4만 4000의 물이 흐르게 되고 유선형의 산책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2.65km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돼 한강까지 연결된다.

기존의 10개 교량 가운데 물넘이교, 새싹교는 철거 뒤 비대칭 사장교 형태로 신설되고, 나머지 8개는 아치형 스카이라인, 상징조형물 등 교량별 성격에 맞게 리모델링된다.

당현천변에는 벚꽃나무를 심어 봄엔 벚꽃 터널을, 여름엔 메밀밭, 가을엔 갈대숲을 각각 조성한다.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 주민 참여 문화행사를 여는 등 동북부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2.18서울신문 14면



실버노래교실 시범운영에 따른 수강생 모집

- ▷운영일시 : 2008년 2월~ 5월
매주 화요일 10:30~12:30
- ▷운영장소 : 노원구민회관 대강당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300명
- ▷수강료 : 만원(50% 감면 적용)
- ▷접수일시 : 2008. 1. 15(화) 10:30부터
2008. 1. 22(화) 10:30부터
- ▷접수장소 : 노원구민회관 대강당
(홍보체육과 ☎ 950-3100)

구청 '금요음악회' 출연자 접수 안내

- 노원구청 1층 갤러리카페에서 개최하는 금요음악회(12:30~13:00)의 출연 희망 접수를 받습니다.
- ▷대 상 : 노원구 주민
- ▷부 문 : 성악, 가요, 악기연주 등
- ▷장 소 : 노원구청 1층 갤러리카페
(총무과 ☎ 950-3310)



노원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모습

노원문화원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노원문화예술회관 4층 강의실)

- 월 : 주산교실(유치원, 초등1~2년)/생활영어(초, 중급)/사랑댄스(초, 중급)/ 경기민요, 가락 장구(연구반)
- 화 : 재테크/한국무용(초, 중급)/기초 영어/기초 영문법
- 수 : 와인 제대로 알기/생활중국어(초급)/수채화 어린이 독서인성 기르기(초등 1~3년)
- 목 : 플로리스트(꽃집창업반)/포크기타 첫걸음(초, 중급)/추억의 팝송교실/경기민요, 가락 장구(초, 중급)
- 금 : 아나운서 꿈나무(초등)/일본어 입문/일본어 회화/다이어트댄스/한국무용(연구반)/사랑댄스(중급)

(7호선 노원역 메가빌딩 3층 강의실)

- 월 : 생활한자 / 부동산 법원경매
- 화 : 중국어왕초보 / 사진교실 초급(디카, 수동) / 웰빙플라워(실내정원)
- 수 : 사군자 및 문인화 / 재테크 / 부자되는 풍수인테리어(초급)
- 목 : 쉬운 법원경매 / 화훼장식 기능사반
- 금 : 리본아트 선물포장 / 영어 프리토킹 / 생활역학
- ▶접수기간 : 2007.12.15 ~ 2008.01월 개강
개강후 중간 접수가능
(노원문화원 ☎ 938-1244, 938-1247)

셋째아 이상 보육료 변경 안내

- ▷지원대상 : 0세부터 만5세
-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의 50% 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신청자에 한함)
-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가정복지과 ☎ 950-3271~5)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 ▷대상사업 : 국민운동, 문화·체육·교육, 소외 계층보호, 안전문화·재해재난, 교통 및 환경보전, 청소년보호
- ▷설명회 개최 : 2008. 1.15(화) 15:00
구민회관 대강당
- ▷신청기간 : 2008. 1.15 ~ 1.23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주민자치과 ☎ 950-3027)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 ▷무료직종설명회 「초등영어강사과정」 : 1월8일
- ▷근로자 수강지원(노동부 지원)
수강료 80% 환급: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정보화기초, 쇼핑물창업과정, 포토샵, 화훼장식기능사, 병원코디네이터, 미술치료사
- ▷전문직종직업훈련
맞춤훈련(세무1급컴퓨터강사양성과정/cafе24 쇼핑물디자이너) 직업훈련강좌 총 65개
-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 월~금(14:00~17:00)
※홈페이지 www.job365.or.kr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 951-0187~8)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 ▷대상 : 서울시 및 인근지역 거주 여성
(남성20%수강가능)
- ▷교육기간 : 2008.1.7~3.29(선착순 마감)
- ▷프로그램 : 정보화, 강사양성, 조리, 제과제빵, 피부미용 등 총157개 강좌(중고생, 직장인을 위한 다양한 야간강좌)
- ▷신청 : <http://bukbu.seoulwomen.or.kr>
방문접수(선착순) ☎ 972-5506
- ▷가사도우미 이모(異母)구인·구직 알선(연회비, 가입비 무료)
- 가사도우미 쓰실 분 : 센터 방문 또는 전화신청
- 가사도우미 일할 분 : 센터 방문 구직 신청
- 서비스요금 : 시간제-4시간 기본 3만원
종일제-8시간 기본 6만원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 975-9094)

노원교양대학

- ▷일시 : 2008. 1. 30 (수) 09:30~11:00
-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강사 : 김병후 (정신과 의사)
- ▷주제 : 행복가정 만들기
(교육진흥과 ☎ 950-4360)

겨울방학 청소년 봉사프로그램

- 구 홈페이지(www.nowon.seoul.kr), 자원봉사센터홈페이지(<http://volunteer.nowon.seoul.kr>)로 접속 후 해당기관에 신청
(동주민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 950-4105~7)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품 모금

- ▷기간 : 2008. 2. 29까지
- ▷접수 : 주민생활지원과, 각 동 주민센터
- ▷문의 :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323-4836)
주민생활지원과(☎950-3002)
각 동 주민센터 사회담당

노원정보도서관 문화강좌 접수

- ▷수강기간 : 2008.1.2 ~ 3.29
- ▷접수 : 12.26(수) 08:00~18:00/12.27(목) 이후 09:00~18:00, 선착순(토·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 12.26(수) - 3층 시청각실(08:00 번호표 배부)
• 12.27(목)이후 - 4층 사무실
(노원정보도서관 ☎ 950-0061)

서울특별시교육감기 스키대회

- ▷일시 : 2008. 1. 31(목) 09:00
- ▷장소 : 오크밸리 스키파크(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산1번지 ☎ 033-730-7000)
- ▷종목(개인전, 학교 및 교육청 대항전)
- 초·중학교 : 스키 알파인 대회전
- 단체전은 학교별, 남녀별 4명으로 접수 환산함
- ▷신청 및 문의 : 북부교육청 ☎ 3499-6928,
홈페이지 <http://www.ben.go.kr>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12월 31일까지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 950-3199, 3345, 3354)



12월의 보건소 ! 건강은 건강할때 지킴시다

에이즈 신속검사

▷검사시간 : 매주 수요일
09:00~12:00(예약제 ☎950-3614)
▷검사대상 : 익명, 무료실시
▷검사방법 : 오전 채혈, 오후 결과 확인
▷장소 : 보건소 1층 병리검사실
(병리검사실 ☎ 950-3614)

담배! "저 끊었습니다"

▷일시 : 연중
▷대상 : 관내 주민 중 금연 희망자
(20세 이상)
▷방법 : 예약제(☎ 950-4190~2)
▷장소 : 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
▷내용 :
⇒ 금연상담, 교육 및 등록
⇒ 행동요법 지도 및 금연보조제
제공(패치, 껌)
⇒ 6개월간 금연상담 관리
▷비용 : 무료
(금연클리닉 ☎ 950-4190~2)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교실

▷기간 : 2008. 1. 2 ~ 1. 31
매주 화 13:00~17:00
▷장소 : 1층 만성질환관리실
▷대상 : 고혈압 · 당뇨병환자 및 가족
▷내용
- 혈압 · 혈당측정 및 상담
- 신체 및 비만도 측정
- 개인별 맞춤 고혈압 · 당뇨병교육
- 식이, 운동, 금연상담
▷방법 : 개별상담
(보건소만성질환실 ☎ 915-4761)

한방 진료

▷일시 : 월~금 09:00~18:00
(방문 또는 전화예약)
▷대상 : 만 15세 이상 노원구민
▷내용 : 상담 및 침, 투약 등
▷장소 : 보건지소 한방건강증진실
(월계4동 소재)
(보건지소 ☎ 915 - 4764)



주간보호실 운영

▷일시 : 월 ~ 금(법정 공휴일 제외)
10:00 ~ 17:00
▷장소 : 보건지소 4층 주간보호실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중풍 및
노인성질환으로 원만한 공동생활
이 가능하고 자립보행과 용변처리
가 가능한 어르신
(보건지소 주간보호실 ☎ 915-4713)

재활운동실 이용자 추가모집

▷모집 : 07.12.26 ~ 08.1.31
▷실시기간 : 2008.1.8 ~ 6.28
주 2~3회 14:00~17:00
▷이용대상 : 40세 이상 지역 내
보행 가능한 뇌병변 · 지체 장애인
▷운영장소 : 보건지소 2층
재활보건실
▷운영내용 : 재활상담/평가, 일상
생활동작교육, 재활운동 등
(보건지소재활보건실 ☎ 915-4763)

겨울철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 이렇게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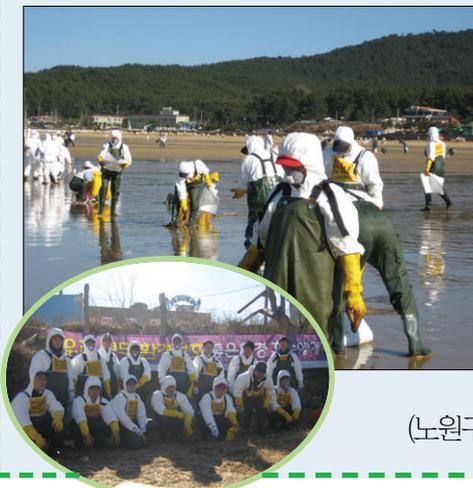
- ♣아토피 질환은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선택 시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
- ♣정기적인 목욕과 보습제의 사용, 실내 습도를 유지하여 피부건조를 막아주어야 하며, 덥지 않게 실내온도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
- ♣피부는 늘 청결하게 하고 손톱은 짧게 깎아 피부감염을 막아주어야 한다.
- ♣면소재의 의복을 입고 양탄자나 담요와 같은 침구류를 없애 정전기 등에 의한 자극을 줄여주어야 한다.
- ♣애완동물을 없애 실내 위생상태를 개선하고 또 집먼지 진드기를 줄여주어야 한다.
- ♣심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한다.
- ♣정확한 알레르기 원인을 찾아 피해야 한다.

12월의 웰빙! 겨울철 낙상에 주의합시다

- ♣운동을 통해 근력을 키운다.
- ♣신발은 고무바닥에 굽이 낮은 신을 신는다.
- ♣약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알아둔다.
- ♣누워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 ♣집안의 깔개는 바닥에 고정시켜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전선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한다.
- ♣계단이나 목욕탕에 난간이나 손잡이를 만들고 야간에는 전등을 이용하고 지팡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한다.

"태안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 노원구 주민, 공무원 등 피해복구 자원봉사 적극 나서 -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45명과 노원구 직원 40명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못쓰는 옷가지 등을 챙겨 태안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특히 대입수능 시험이 끝난 수험생 위주의 가족단위 봉사활동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노원구청공무원노동조합 ☎ 950-3792)

대학의 문화·교양강좌에 지역주민 초대 하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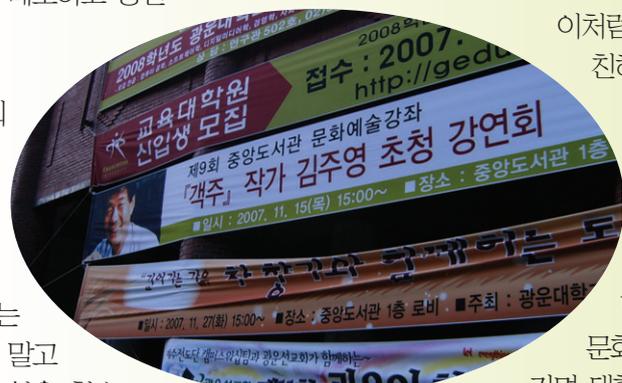
1088년 이탈리아 볼로냐에 대학이 생긴 이래 대학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여, 오늘날의 대학은 상아탑에 안주하며 학문만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을 선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한 미국에서 그 지역의 대학은 지역민들의 자랑이며 지역사람들이 즐겨 애용하는 문화공간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대학은 주민들과 그다지 밀착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구에는 6개의 대학이 있다. 내가 사는 월계동 지역에도 대학이 있어 오가며 지나치곤 한다. 11월 중순경 학교 앞을 지나다 학교 문화관 앞에 내걸린 플랜카드에 눈길이 쫓겼다. 그 대학 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강좌에 평소 호감을 지니

고 있던 '객주'의 김주영 작가가 강연을 한다는 것이다. 강연회 날짜와 시간을 메모하고 강연 당일 강연장으로 향했다.

흰철한 키에 당당한 체격의 작가는 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그는 '삶과 상상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갔다. 작가는 학생들에게 "기술자가 되지 말고 과학자가 되라"며 수학적 일을 할수록 상상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상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잘 놀고 시를 읽고 소설을 보고 그림을 감상하고 연애도 열심히 하여 감수성을 키울 것을 권했다.



독서를 하며 자란 세대인 내게는 좋은 경험이었다. 평소 만나기 어려운 작가를 보고 강의를 들을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이처럼 대학과 주민이 좀 더 친해졌으면 싶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양강의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은 아카데미한 분위기도 맛보고 문화적인 욕구도 충족시키며 대학에 대한 호감과 애정을 키우고 대학은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임진희 취재기자



1~3월 프로그램

무엇을 배워볼까?

배우며 나누는 1프로그램 봉사활동, 주민 자치센터와 함께해요.

월계1동(☎ 943-1091~3)

Table of programs for Moon-gye 1-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월계2동(☎ 999-1651~3)

Table of programs for Moon-gye 2-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월계3동(☎ 948-3011~3)

Table of programs for Moon-gye 3-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월계4동(☎ 949-2251~3)

Table of programs for Moon-gye 4-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공릉1·3동(☎ 975-9811~3)

Table of programs for Gong-reung 1 and 3-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Table of programs for Moon-gye 1-dong (continued)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공릉2동(☎ 971-7611~3)

Table of programs for Gong-reung 2-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하계1동(☎ 977-4711~3)

Table of programs for Ha-gye 1-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하계2동(☎ 973-7611~3)

Table of programs for Ha-gye 2-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중계본동(☎ 952-0462-4)

Table of programs for Jung-gye Bon-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Table of programs for Jung-gye 1-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중계1동(☎ 932-3081~3)

Table of programs for Jung-gye 1-dong (continued)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중계2동(☎ 979-7511~3)

Table of programs for Jung-gye 2-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중계3동(☎ 949-3211~3)

Table of programs for Jung-gye 3-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중계4동(☎ 951-0462-4)

Table of programs for Jung-gye 4-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상계1동(☎ 932-3431~3)

Table of programs for Sang-gye 1-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상계2동(☎ 932-3581~3)

Table of programs for Sang-gye 2-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상계3·4동(☎ 932-3941~3)

Table of programs for Sang-gye 3 and 4-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상계5동(☎ 932-4891~3)

Table of programs for Sang-gye 5-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상계6·7동(☎ 932-5271~3)

Table of programs for Sang-gye 6 and 7-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Table of programs for Sang-gye 8-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상계8동(☎ 932-5921~3)

Table of programs for Sang-gye 8-dong (continued)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상계9동(☎ 932-6801~3)

Table of programs for Sang-gye 9-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상계10동(☎ 938-0236-8)

Table of programs for Sang-gye 10-dong including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Music.



기고

학교와 구청, 호혜의 선순환

세계는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거대한 트렌드속에서 빠르게 동질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영어는 전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모국어 혹은 제2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화 시대의 필수 언어이다. 어느 국가나 대학이 얼마나 세계화 되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원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하는지 여부가 사용될 만큼 영어 구사능력은 세계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10년 전 보다 10배 증가하여 유학수지 적자가 44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 박사학위 취득후 귀국하는 사람의 비율이 해마다 줄어서 이젠 40%가 채 안된다. 인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 교육에 대한 불신과 현지 영어교육에 대한 기대 심리에 기인한다.



서광수
삼육대학교 총장
(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이러한 때에 교육1등구를 지향하는 노원구의 교육정책들은 참으로 주목할 만하다. 특별히 삼육대학교와의 연계사업인 노원어린이 영어교실과 어린

이영어캠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영어교육특화사업과 적극적인 교육육성정책의 결실로 재경부 산하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로부터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 받았다. 이에 원어민 교사 증원배치, 사이버 영어마을운영, 영어과학공원조성, 통합외국어학습센터 운영 등의 다양한 국제화 교육특화 사업 마스터



플랜이 구체화되면 향후 교육발전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노원구가 국내교육의 한계를 실감하고 떠나는 수많은 학생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의 전형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러한 노원구의 적극적인 교육육성정책에 노원구 관내의 대학 총장들은 지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노원구가 명실상부한 '교육1등구'가 되려면 초급학교로부터 대학, 대학원에 이르기 까지 노원구 관내의 모든 교육기관들이 저마다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각 학교가 1등이 되어야 노원구 교육이 1등이 되는 것이다. 각 교육기관의 노력, 기관간의 상호 협력, 그리고 구의 지원이 학교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3대 요소이다.

학교를 그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는데 그 중 '지역사회 학교설'이란게 있다. 학교는 '지역사회 그 자체'로서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교육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교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한 교육과정개설, 지역의 환경과 자원을 이용한 실습과 현장학습 실시, 지역사회에 필요한 각종 봉사 제공'의 역할을 하며 지역은 학교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미 노원구와 삼육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학교들을 통해 일부 실현되고 있는 이러한 학교운영의 모델은 교육을 최대 특화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원구와 노원구 관내의 학교들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학교가 지역사회 그 자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고 지역사회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호혜(互惠)의 선순환(善循環)이 이루어 질 때 노원구의 교육발전, 더 나아가서 지역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의 겨울방학 보내기 ...

안녕하세요? 노원구 소식지 기자 윤다혜입니다. 수능을 끝낸 수험생 여러분,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혹시 틈나는 시간에 할 일이 없어 방황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번 호에는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현직 교사 두 분과 대학생 두 명의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원서 지원과 논술, 구술면접, 실기 등 대입을 준비하면서 또는 준비가 끝난 후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권태경 선생님(영신여고)

내가 꿈꾸는 직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자. 전공분야에서 성공한 위인들의 책을 읽거나 대학 과사 무시를 방문하여 조교 및 선배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다면 1학년 때부터 맞춤식 준비를 해야 하니 필요한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전공에 관계없이 어학공부를 제 일 순위 지상과제로 삼아야 한다. 영어구사능력이 취업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문법과 독해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실용영어 학습에 비중을 두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유혜진 선생님(정의여고)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나는 학생들에게 책 읽기를 권하고 싶다. 특히, 평소에 시간이 부족해서 읽기 어려웠던 장편 대하소설들을 권해주고 싶다. 대학생이 되면 동아리, 학회, MT 등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영어와 전공 공부 등으로 인해 리포트를 위한 책 읽기 외에는 실질적인 독서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의 글쓰기에 익숙한 현 세대가 교양 수업의 리포트와 서술형 시험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읽어 두는 것은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황석영의 <장길산>, 최명희의<혼불>, 박경리의<토지>등을 추천한다.

권보람(고려대 독어독문학과 3년)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여행'이다. 여행은 놀면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여행은 공부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



하게 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한다.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곳에서 나는 자유롭게 스트레스를 해소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시야를 넓혔으며, 책에서만 봤던 고대 유적들을 실제로 보면서 신기함과 몽클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을 통해 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듯 여행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다. 여행을 통해 얻은 '선물'을 안고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은 분명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남태식(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4년)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갖추어 놓으면 편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회계열이나 인문계열로 진학을 할 사람은 파워포인트나 엑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진학을 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파워포인트나 엑셀공부에 관하여는 MOS 자격증을 추천한다. 일주일정도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충분히 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공대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C언어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윤다혜 취재기자

형형색색 빛의 향연 ... 도심 겨울축제 '팡파르'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 도심이 형형색색 빛의 축제에 푹 빠져들었다. 시청앞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루체비스타 주변에는 겨울밤 빛의 향연을 만끽하기 위한 시민고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광화문에서 송례문에 이르는 거리 양편 가로수조명도 연말연시 분위기를 한층 더해 준다.

서울광장·청계광장 루체비스타 '인기'
지난 12월 6일 빛을 밝힌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루체비스타는 오는 1월 6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도심의 밤을 수놓는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도심 루체비스타는 서울광장 305m, 청계광장~광통교 구간 600m에서 54만여개의 전구로 빛을 밝히고 있다.

루체비스타(Lucevista)는 빛을 뜻하는 이

탈리아어 루체(Luce)와 풍경, 전망을 의미하는 비스타(Vista)를 합한 단어로 사랑과 나눔, 빛의 축제를 상징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국민이 참가하는 행사로 서울의 대표적인 겨울 관광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서울광장 루체비스타 안에 자리한 스케이트장은 빛의 축제가 열리는 현장 한복판에서 겨울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로 첫손에 꼽히고 있다. 초·중·고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물론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온 엄마·아빠까지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2월 10일까지 운영되며, 기온과 이용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용시간은 월~목 오전 10시~오후 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11시까지이다. 이용료는 1시간 1천원으로 스케

이트와 헬멧 대여가격이 포함돼 있다. 장갑, 물품보관소 사용료(500원) 별도이다.

도심 가로수 조명 겨울 분위기 '만점'
광화문에서 시청앞을 거쳐서 송례문에 이르는 2km 도심 거리 양편을 수놓은 가로수 조명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안성맞춤이다. 오는 2월 10일까지 불을 밝히는 가로수 조명은 하루해가 저무는 시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345그루 나무에서 전구꽃을 피워낸다. 가로수 조명뿐 아니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루체비스타, 도심 빌딩 곳곳을 수놓은 크고작은 크리스마스트리의 불빛까지 서울은 지금 울긋불긋 빛의 향연에 빠져들고 있었다.



시청뉴스
서울시 조직개편 단행
1실 5본부 9국 체제로

서울시가 오는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최근 4보좌관 1실 4본부 12국의 조직을 1실 5본부 9국으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3년간 정원을 1천 300명 줄이기로 했다.

정책보좌관과 산업국, 환경국, 건설기획국,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건설안전본부가 사라지고, 도시교통본부, 물관리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이 새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산업국은 경쟁력강화본부에, 환경국은 맑은서울 본부에 흡수된다.

효율성 높은 강소조직 지향
3년간 정원 1300명 줄여

조직 전반에 경쟁체제도 도입된다. 3급 이상 고위직에 복수직급·직렬·직위 개념이 도입돼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직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결재만 하던 5급 사무관에게 주요 업무를 직접 맡겨 역량을 평가받도록 했으며, 과장급인 4급 서기관이 팀장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서울시 조직개편의 키워드는 작지만 집행력을 높이는 '강소조직'에 있다. 연공서열 대신 일의 성과를 중시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신인사·신감사 시스템이 공직사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왔다면, 이번에는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공공분야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내집 내집포앞 눈을 내가 치워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내집 내집포앞 눈은 내가 치워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120
다산콜센터



120 다산콜센터, 2010 WDC,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시민고객이 뽑은 2007년 서울시 10대 뉴스



서울시민고객이 뽑은 2007년 서울시 10대 뉴스는 어떤 것일까. 서울시는 지난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서울시 10대 뉴스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총 2만2천964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선정한 2007 서울시 10대 뉴스를 알아본다.

ICSID,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선정

서울시가 지난 10월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ICSID(국제산업디자인단체총연합회) 총회에서 '2010 세계디자인수도(World Design Capital)' 로 선정됐다. 앞으로 서울시가 펼쳐나갈 도시 디자인에 대한 비전을 지구촌이 인정한 것이다.

세계디자인수도(WDC)는 ICSID가 2년마다 선정하는 도시 디자인 관련 최고의 영예. 특히 올해는 세계 최초의 WDC를 차지하기 위한 지구촌 도시간 경쟁이 치열했다. 2010 WDC 서울시는 앞으로 ICSID가 주최하는 각종 국제회의와 행사를 유치할 수 있고, WDC 브랜드를 활용한 도시 마케팅도 펼친다.

서울시는 2010 WDC에 걸맞는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2008년 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을 허물고 디자인플라자&파크를 건립한다. 또 서울 곳곳에 디자인서울 거리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건축물에 디자인 개념을 적용시킬 계획이다.

서울 대표전화 '120' 다산콜센터 탄생

서울시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 120. 지난 9월 11일 정식 개장한 120 다산콜센터 전화번호가 서울시 대표전화로 자리를 잡고 있다.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120 다산콜센터는 서울에 대한 시민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전화창구이다.

총 104명의 상담원이 하루 5천여통의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 120 다산콜센터는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시 업무를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돌리지 않고, 서울 120에서 직접 해결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즉시 안내가 어려운 사항은 확인 후 리턴콜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신뢰감을 더해 주고 있다.

서비스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외국어 안내에 이어 앞으로는 휴대폰 가입자 동의를 받아 위치 확인 후 주변 공공

기관, 주차장 정보 등에 대한 상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활용하여 치매노인, 실종 유아 등에 대한 위치확인 등 안심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 행복지수 높아라... 여행(女幸)프로젝트 '출발'

여성의 생활 속 불편과 불안 요소를 없애고, 서울생활 전반에 걸쳐 여성이 지금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2010' 이 발표했다. 여행(女幸)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2010년까지 총 7천여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 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여성을 위한 콜택시 서비스 등 시민고객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담겨있다. 교육시설 아동에 대해 상해나 시설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건강 보험료도 지원한다.

여행프로젝트는 여성 성차별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중심적 논의와 달리,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생활 곳곳에서 여성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여성이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행복지향적 프로그램이라는 차이가 있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 파크 '조성'

서울성곽이 지나던 동대문운동장이 사라지고 디자인 명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가칭)가 조성된다. 2010년 완공 계획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 파크는 국제현상설계를 통해 당선된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하디드의 '환유의 풍경'으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유쾌함과 역동성을 드러낼 것이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낮은 구조로, 마치 푸른 언덕을 연상케 하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는 도시설계와 조경, 건축을 가장 조화롭게 이뤄낸 매력적인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다.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에 걸맞는 도심 랜드마크가 탄생하는 것이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눈길을 끈다. 선진국 수준의 80%에 불과한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이 9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패션산업의 매

출액은 연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고, 동대문 상권의 매출은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007년 서울 차 없는 날 '성황'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승용차를 버리고 지구 온난화 방지에 참여해보자는 뜻에서 서울시가 지난 9월 10일 진행한 '2007 서울 차 없는 날' 행사가 시민고객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특히 시내버스를 제외한 승용차, 오토바이, 택시 등의 운행이 통제된 종로 차 없는 거리에서는 환경전시회와 음악공연 등이 열리고, 자전거 행렬이 줄을 이었다. 종

각 앞 차도에는 1천m² 넓이의 천연잔디가 깔려 참가자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내 주요 지점의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8만7천800여대에서 7만3천여대로 16.9% 감소했다. 종로 일대의 미세먼지 또한 차량 통행이 비교적 적은 청계천과 같은 70ug/m³의 농도를 보여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굿바이 성냥갑 아파트... 건축물 디자인심의 강화

서울시는 지난 8월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아파트 단지배치와 단지내 동별 층수 등 건축물 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강화했다. 똑같은 층수와 똑같은 모양의 성냥갑 아파트로 대표되는 천편일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건축물과 비슷한 디자인은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도록 하는 등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 중인데, 이미 몇몇 디자인은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재설계를 요구받아 보다 수려한 디자인으로 재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1천세대 또는 10개동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30%는 나머지 70%와 디자인을 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하천변 아파트 등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의 건물 디자인이 확 달라지고 스카이라인이 살아나는 등 도시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인기

서울시가 주변 전세가의 50~80% 수준으로 최고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선보였다. 저렴한 가격에 오랜 기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시프트의 매력에 올한해 무주택 시민고객의 호응이 뜨거웠다.

시프트는 저렴한 전세금과 장기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 외에 청약저축 통장을 이용해 다른 아파트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보태져 분양 때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시민고객의 호응을 반영, 2010년까지 시프트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7천170채를 늘린 3만3천여 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모두 합의

지난 7월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 합의로 서울시내 4곳의 자원회수시설을 주변 자치구에서 공동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울초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시작으로 추진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이 모두 마무리

된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내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치구는 금천·서대문·종로·동대문·은평·관악구 등 6개 자치구로 줄어들었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4곳 가운데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만 마포구와 중구, 용산구 공동이용을 전제로 가동했을 뿐, 나머지 강남·양천·노원자원회수시설 등 3곳은 당초 해당 자치구만 사용해오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이웃 자치구와 공동이용이 이뤄졌다. 올해 잇따른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합의로 서울시의 김포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한이 2020년에서 2044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기초질서 지키기' 서울시 전역 확대 시행-담배꽂초 사라진 서울 거리 '깨끗'
- ▶ 2009 세계대도시 기후정상회의(C40) 서울 유치-'서울 친환경에너지 선언' 등 잇따른 환경 대책 호평
- ▶ 20년까지 사는 '장기전세주택' 인기-주변시세 80% 이하 공급, 경쟁률 7대1 넘어
- ▶ 서울시 동사무소 100여곳 통합 문화·복지 센터로-기존 동사무소,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활용
- ▶ 동대문운동장 철거, 디자인 플라자&파크 건립-서울 디자인 패션 산업의 메카로 육성
- ▶ 서울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사용 합의-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24년 연장 가능
- ▶ 성냥갑 아파트 사라진다-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 디자인 심의 강화
- ▶ 거리노점 디자인 표준 10개 확정-디자인 시범거리에 활용, 거리경관 개선
- ▶ 9월 10일 서울 차 없는 날 시민 참여속 시행-통행량 23%, 미세먼지 농도 6.4% 감소
- ▶ 서울 25개 자치구에 치매지원센터 건립-치매관련 종합복지 시스템 구축
- ▶ 120 다산콜센터 정식서비스 개시-전화 한 통화로 시민불편 한번에 해결



2007 서울시 10대 뉴스 설문 엿보기

- ▶ 용산미군기지 전체공원화 확정-110여년만에 시민 품으로, 2015년 1단계 개방
- ▶ 서울시 불법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 선언-서울시 솔선수범, 자체선전탑 자진 철거
- ▶ 재산세 공동세법 내년 시행, 균형발전 토대 마련-지역간 세수격차 14.8배에서 5.4배로 낮춰
- ▶ 서울 '2010 세계디자인수도' 선정-10년 이내 시장 규모 15조원대로 두배 이상 증가
- ▶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본격 시행-수상관광콜택시 운행, 용산·마곡 수변도시 조성
- ▶ 강북 '드림랜드' 초대형 녹지공원으로 조성-2,800억 투입, 세계적 산책·문화공원으로
- ▶ 하이서울페스티벌 2007 성황리에 개최-한강~도심~고궁 잇는 시민축제 자리매김
- ▶ 세계 최초, 서울전역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유비쿼터스 서울 앞당겨

- ▶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 분양원가 공개-집값 안정화로 서민생활 안정 기여
- ▶ 은평뉴타운 분양가 10% 인하, 전매제한-85㎡ 분양가 3.3㎡당 1050만원
- ▶ 서울시 인사 쇄신, 무한경쟁 돌입-현장추진단 운영, 3% 퇴출, 2010년까지 1300명 감축
- ▶ 아토피 없는 '건강서울' 조성, 전문클리닉 설치-아토피 환자 가정 대상 대대적 역학조사 실시
- ▶ 학습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위한 400억 투입-낡은 책걸상 교체,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 ▶ 서울 25개 전 구청에서 여권 발급-여권발급시간 단축 통한 시민불편 해소
- ▶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시민 만족도 91%-환승 두배 늘고 승용차 통행량 크게 줄어
- ▶ 관광객 1200만 유치 '시동'-중저가 숙박단지 '이노스텔' 탄생, 외국인 글로벌존 설치 등
- ▶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시행-셋째 만 5세까지 양육비 지원, 아이 돌보미, 보육도우미 확대
- ▶ 자전거 전용도로 360km 확대 조성-잠실 등 4개권역, 공공임대 자전거 비치
- ▶ 서울시 친환경에너지 이용 본격화-태양광발전소 건립, 온실가스 감축 추진

수도권 통합환승 제도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시내버스, 수도권 전철 모두에서 대중교통요금 환승합인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시민고객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개편 3주년을 맞아 단행한 수도권 통합환승합인제는 출퇴근을 위해 시계를 넘나드는 시민고객의 교통카드 한장으로 서울시내버스와 경기도 시내버스는 물론 수도권 전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 대중교통 이용승객이 늘어나는 대신 나 홀로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는 줄어들어 대기질 개선 등을 통한 맑은 서울을 만들기과 통행속도 향상에 따른 교통유발비용 감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친환경에너지 이용 본격화

서울의 대기질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통해 가시화됐다.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은 서울의 에너지 사용량을 2010년까지 12%(2000년 기준)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90년 기준)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또 현재 0.6%(2004년 기준)에 불과한 태양광, 지열, 하수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을 2010년 2%, 2020년 1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4월에는 공공부문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인 청계천 유지용수용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고, 2010년 완공 예정인 서울시 신청사에는 빗물 재활용, 에어컨, 고효율 변압기, 옥상 녹화 등 친환경 설계를 반영했다. 여기에 태양광 시스템과 태양열, 지열 에너지를 도입해 신청사를 최첨단 그린빌딩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처럼 대기질을 개선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도입하려는 서울시의 일관된 친환경 정책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대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 2009년 정상회의를 서울로 유치하는 성과도 올렸다.

복지예산 늘리고... 창의문화도시 만들기 '주력'

2008년 서울 살림살이 19조 4343억원 규모

“서울시의회는 최근 2008년 서울시 예산을 19조4천343억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총액은 그대로 두고 일부 항목만 조정해 통과시켰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문화를 통한 미래 서울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도시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있다. 2008 서울 살림살이를 알아본다”

문화가 미래 서울의 경쟁력... 창의문화도시 만든다

미래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 육성과 서울 글로벌화 가속도를 더해 나간다. 아울러 2010 세계디자인 도시(WDC)에 걸맞는 디자인 서울 등 창의문화도시 만들기, 2008년 세계디자인올림픽 개최를 통한 지구촌 디자인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을 3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을 전면 리모델링한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서울형 문화산업을 개발하고, 역량있는 문화예술단체를 발굴하여 제2, 제3의 난타와 점프를 탄생시킬 계획이다.

서울의 대표축제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세계적 축제로 확 바뀐다. 역사와 전통문화를 테마로 하는 봄축제, 마라클 한강과 아리수 사랑 등을 주제로 한 여름축제, 도전과 모험이 함께하는 가을축제, 빛과 조명의 겨울축제가 천만시민과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어린이, 여성, 어르신까지...가족이 행복한 서울

서울시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한 복지예산은 새로운 서울형 복지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2010년까지 모든 어린이 놀이터를 안전하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만 5세 미만 아동과 부모를 위한 체험공간인 서울키즈센터의 첫단추도 끼우게 된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일, 기초생활 보장을 통한 따뜻한 서울 만들기는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기초노령연금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장애인 이동권 보호와 자립생활 지원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복지바우처도 눈여겨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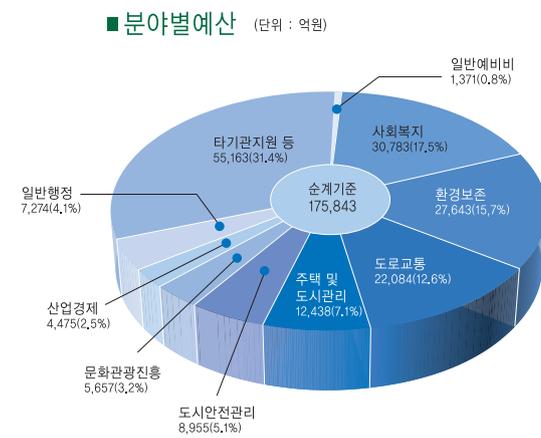
드림랜드, 어린이대공원, 서대문 독립공원 등이 새로운 시민고객 센터로 바뀌고, 콘크리트 빌딩에도 녹색 시티가 마련된다. 공공건물은 물론 민간 건축물 옥상까지 푸르게

푸르게 변신한다. 2009년 C40 서울총회와 세계기후변화 박람회를 앞두고 맑은 서울 만들기는 한층 속도를 더하게 된다.

한강 르네상스, 도심재창조...달라지는 서울

회복과 창조를 주제로 한강을 첫손에 꼽는 서울의 상징으로 리뉴얼하는 한강르네상스도 본격화된다. 2008년에는 한강다리에 보행자를 위한 녹색길을 만들고,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을 잇는 하늘다리, 광나루 자전거 전용공원 조성도 계획돼 있다.

강남이든 강북이든 골고루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심재창조 사업도 주목을 받는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조성, 광화문광장 만들기, 세운상가 녹지화 등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동대문운동장이 철거되는 자리에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가칭)를 조성하여 서울의 디자인 패션산업 메카를 만든다. 남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남산 만들기도 눈길을 끈다.



“서울시정모니터를 찾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시민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정모니터를 모집합니다. 서울시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가 펼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현장모니터링과 지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008년 1월 4일까지이며, 활동기간은 2008년 2월~12월입니다. 우수 의견에 대해서는 소정의 채택료를 지급하며 서울사랑 등 시정홍보물을 우선 보내드립니다.

지원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모니터 배너를 클릭하여 교통, 환경,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도시관리 가운데 관심있는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동기, 활동방향 등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의 731-6331